

- **주요 뉴스:** 세계 주요 중앙은행, 스태그플레이션 위협에 대한 대응은 국가별로 상이
 - OPEC+, 공급량 소폭 확대 등 기존 입장 유지. 유가는 7년 만에 최고 수준
 - 미국 바이든 대통령, 공화당의 협력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에 직면
 -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, 중국에 1단계 무역협정 약속 이행을 요구할 계획

- **국제금융시장:** 미국은 인플레이션 위협과 통화정책 조기 전환 가능성 등이 영향
주가 하락[-1.3%], 달러화 약세[-0.2%], 금리 상승[+2bp]

- **주가:** 미국 S&P500 지수는 국채금리 상승과 연방정부 채무불이행 우려 등이 배경
유로 Stoxx600 지수는 중국 헝다그룹 사태와 기술주 약세 등으로 0.5% 하락
- **환율:** 달러화지수는 미국 9월 고용통계 발표를 앞두고 차익매물 출회 등이 원인
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.2%, 0.1% 상승
- **금리:**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속화 전망 등이 반영
독일은 미국 채권시장과 유사한 요인 등으로 1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85.2원, -4.2원) 0.4% 하락, 한국 CDS 상승

		10/4일	10/1일	전일대비			10/4일	10/1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300.5	4,357.0	-1.30%	국채 금리 10y	미국	1.48%	1.46%	2bp
	유럽	450.77	452.90	-0.47%		독일	-0.21%	-0.22%	1bp
	중국	휴장	휴장	-		한국	20bp	19bp	1bp
	일본	28,445	28,771	-1.13%	CDS 5y	중국	47bp	46bp	1bp
	한국	휴장	3,019.2	-		EMBI+	-	379	-
환율	달러지수	93.82	94.04	-0.23%	위험 지표	VIX	22.96	21.15	8.56%
	유로화	1.1621	1.1596	0.22%		WTI유	77.62	75.88	2.29%
	엔화	110.93	111.05	0.11%	원자재	구리	423.7	418.9	1.15%
	위안화	휴장	휴장	-		금	1,769.6	1,761.0	0.49%
	원화	휴장	1,188.7	-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500, 유럽 Stoxx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세계 주요 중앙은행, 스태그플레이션 위협에 대한 대응은 국가별로 상이

- 다수의 국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 위협에 직면. 다만 통화정책 대응은 국가별로 차별화. 노르웨이와 일부 신흥국은 금리인상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. 연준과 영란은행은 긴축을 위한 움직임을 나타내기 시작. ECB와 일본은행은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
- 통화정책은 공급측 요인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 정설. 그러나 연준은 인플레이션 기대의 확산 방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, ECB는 임금인상 여부에 초점. 일본은행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인식
- BlackRock의 Jean Boivin은 지금은 단순히 수요측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상황과 다르다면서, 공급측 요인에 의한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라는 이례적 상황으로 각 중앙은행의 대응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정책 차별화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OPEC+, 공급량 소폭 확대 등 기존 입장 유지. 유가는 7년 만에 최고 수준

- 예정대로 11월 공급량을 일일 40만배럴 확대하기로 결정. 시장에서는 OPEC+가 원유시장에 대한 통제력 유지를 위해 추가 생산에 소극적이라고 평가. WTI 원유 11월 선물은 추가 증산이 없다는 소식에 2014년 11월 이후 최고치 경신

■ 미국 바이든 대통령, 공화당의 협력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에 직면

- 현 상황에서 채무불이행 발생을 피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경고. 또한 트럼프 시대 당시에는 공화당이 민주당 도움으로 부채한도를 확대했다고 강조

■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, 중국에 1단계 무역협정 약속 이행을 요구할 계획

- 타이 대표는 중국의 대규모 불법 보조금 지급 중단 촉구 등을 통해 미국 경제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. 관계자에 따르면, 타이 대표는 중국의 1단계 무역협정 이행을 위해 관세 부과도 배제하지 않을 전망

■ 유로존 10월 Sentix 투자자 심리, 16.9로 금년 4월 이후 최저 수준

- 이번 결과는 시장 예상치(18.6) 하회. Sentix의 Patrick Hussy는 경기회복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, 최근 추세를 고려 시 단기간 내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

■ ECB 부총재,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일부 구조적 요인의 영향도 존재

- 데 쿼도스 부총재는 공급 병목과 에너지 비용 증가 등 일부 요인은 구조적 특성을 지니며, 향후 임금상승 등으로 전이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

■ 프랑스와 스페인,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범유럽 차원의 대응을 촉구

- 스페인 칼비노 재무장관과 프랑스 르메르 재무장관은 에너지 가격 급등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며, 향후 수 년 동안 높은 수준의 에너지 가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

■ 중국 헝다그룹, 홍콩 증시에서 거래 중단. 계열사 매각에 따른 자금 조달 가능성

- 홍콩 증권거래소는 10/4일 헝다그룹과 헝다의 부동산 관리사업부문인 헝다물업의 주식 거래를 중단한다고 발표. 그러나 구체적 이유는 미제시
-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, 헝다그룹은 계열사 매각으로 50억달러의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. 다만 이번 결정이 관련 문제 해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

■ UBS와 Societe Generale,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연말까지 상승 지속 예상

- UBS의 Leslie Falconio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직선형으로 상승하지 않을 수 있지만, 결국 연말 기준 1.75%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. Societe Generale의 Subadra Rajappa도 연말로 갈수록 10년물 금리의 상승 압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

■ 세계무역기구(WTO), 금년과 내년 세계무역 규모 전망치를 상향 조정

- 세계무역 규모가 올해와 내년에 각각 전년비 10.8%, 4.7% 늘어날 것으로 예상. 이는 이전 전망치(8.0%, 4.0%) 대비 모두 증가. 다만 향후 국가별 무역회복 차별화, 공급 차질과 코로나 19에 따른 무역감소 리스크 등이 존재한다고 부연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0/4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8월 제조업수주(전월비): 1.2%, 7월(0.7%), 예상치(0.9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0/5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8월 무역수지, 9월 ISM 서비스 PMI, 마켓 종합 PMI
- 유로존 9월 마켓 종합 PMI, 호주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미국 연준, 스테그플레이션 우려 대응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 - 블룸버그

(The Federal Reserve Confronts an Almost Impossible Task)

- 연준은 최근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높은 인플레이션의 상황에서도 긴축 선회 의지를 표명. 하지만 펜데믹 이후 경기부양책으로 M2(광의통화) 공급은 증가했으나 회전율은 저조하고, 추가실업급여 종료 후 실질소득은 감소 추세
- 8월 신규고용의 큰 폭 감소, 6월 이후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둔화 지속, 고령화 등은 물가상승을 제약하는 요인. 아울러 주요국 대비 미국 국채의 높은 수익률과 달러화 강세는 국채 수요를 자극해, 채권시장 안정화도 기대
- 이에 연준은 물가상승 압력 완화 요인이 있음을 고려하고, 긴축 결정 시 다양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. 특히 인플레이션 지속 시 정책결정에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

■ 미·중 무역 갈등, 해빙의 가능성은 낮은 상황 - The New York Times

(U.S. Signals Little Thaw in Trade Relations With China)

-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 트럼프 정부의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부정적 효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하면서도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견지. 미국과 중국은 양자의 핵심기술을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우위를 추진하는 기조를 유지
- 무역은 기후문제와 같이 양국이 모두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분야.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규제강화를 시도하고 있고, 중국은 불법 보조금을 늘리고 있어, 양국의 무역갈등 해법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

■ 미국의 물가 지수, 광범위한 분야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관측되기 시작 - WSJ

(Broader Inflation Pressures Begin to Show)

■ 양호한 기업 실적과 가계 잉여저축, 스테그플레이션보다 경기 과열이 우려 - 블룸버그

(It's Not the 1970s Again, at Least in Markets)

■ 중국 헝다그룹의 자산매각, 경영 위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에 미흡 - WSJ

(Selling Off Its Property Services Won't Save Evergrande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ikyoon@kcif.or.kr